

무통문명(無痛文明)에 소심하게 저항하기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무통문명에 대해 얘기한다.

고통을 없애는 장치가 사회 구석구석에 둘러쳐지고 개인 속으로 내면화되어감에 따라 사회 전체의 무통화가 진행되고, 그 결과 무통문명의 내부에서는 자기를 붕괴시킬지도 모를 진짜 고통은 제거되거나 내면화되며, 인간들은 신체의 욕망의 함정에 빠져 생명을 서서히 파비시켜간다. 무통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외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고통이나 호소에 대한 감수성이 극히 저하된다.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무통화한 자는 타인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호소를 들으려 하지 않고, 타인을 일방적으로 눌러 짓밟으면서도 전연 눈치 채지 못한다. 이러한 무통문명은 자본주의와 정보화에 의해 20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다.

나는 나의 이 사진 작업을 처음에는 <worship>이라고 제목 붙였었다. 그러나 뭔지 좀 추상적으로 들려, 전달하려는 의미가 모아지지 않는 느낌을 갖고 있다가 ‘무통문명’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라는 제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무통문명의 특징은 특히 의료분야에서 눈에 띄게 드러난다. 많은 의료 행위들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혹은 예상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잉’ 시행된다. 아기 고양이에게 손등을 물려 찾아간 병원에서 무슨 주사인지 한 대 맞고 사흘 치 약을 받아든 나는 과잉 진료하는 의사를 탓하기에 앞서 이런 사소한 사고로 병원을 찾은 나를 탓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후 뜸자리를 받아와 뜸으로 내 병을 고치고 예방하기로 맘먹었고 지금 3년째 시행 중이다. 그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으며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마당의 텃밭에서 일하다 정강이를 제법 깊이 긁혔다. 물로 씻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이것이 나의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이다.

2011. 1. 20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2)

문제가 있던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뽑았다.

사무장이 처방전을 건네준다.

받아들고 돌아서며 슬며시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 집에 와서 펴보니 세파클러캡슐(?), 록소닌정(?), 페보프릴정(?).

각각 한 알씩 일일 3회 식후 30분 복용으로 되어 있다.

곱게 다시 펴서 이번지로 쓴다.

2011. 3. 4